

제주유나이티드 승격 위한 전력 보강 행보

구단 수장부터 감독, 코치진 잇단 교체 정조국·박원재·임동혁 등 선수도 영입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로 강등된 제주유나이티드가 1부리그 승격을 향한 체제 정비에 나섰다. 구단 수장과 감독을 교체한 것은 물론 지난해 K리그에서 활약하던 선수를 영입해 새 진용을 갖추고 있다.

5일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에 따르면 제4대 대표이사에 한종길(55) SK에너지 B2B사업본부장이 선임됐다. 제주는 지난 연말 남기일 감독을 선임한 데 이어 새로운 수장을 낙점하면서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종길 선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것은 제주의 새출발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 데 있다. 한 선임 대표이사는 1989년 주식회사 유공(현 SK에너지)에 입사해 CRM 기획·지원팀장, 소매시장운영팀장을 거쳐 2018년부터 B2B사업본부장으로 기업 글로벌 성장 전략을 이끌어 왔다.

한 선임 대표이사는 “올해 1부리그 승격과 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축구를 함께 추구하겠다”며 “새로운 도전

의 출발점에서 제주의 앞날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는 남 감독을 중심으로 코칭 스태프에도 변화를 줬다. 새로운 코치를 대거 영입하면서 1부리그 승격을 향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올 시즌 팀을 이끌 핵심 선수도 맞아들였다. 앞서 제주는 지난 2일 정조국(전 강원FC), 박원재(전 전북현대)와 K리그2 임동혁(전 부천FC1995)의 영입 소식을 발표했다.

이번 선수 영입은 남 감독이 함께했던 선수와의 재결합과 수비진 강화에 초점을 뒀다는 게 구단 측의 설명이다. 정조국과 박원재는 각각 2016년 광주FC, 2019년 성남FC 임대 시절 남 감독 지도 아래 활약한 바 있다.

K리그 대표 골잡이인 정조국은 2003년 안양LG(현 FC서울)를 통해 프로에 첫 발을 내딛은 뒤 K리그 통산 380경기 120골 29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2017년 전북현대로 데뷔한 측면 수비수 박원재는 K리그 통산 14경기 1득점, 2016년 부천으로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데뷔한 중앙 수비수 임동혁은 K리그 2 통산 107경기 7득점 2도움을 기록 중이다.

남기일 감독은 “지난 시즌 제주의 가장 큰 고민은 수비였다”며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선수 영입을 진행

했고 훈련을 통해 전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조국, 박원재와 함께한 경험이 있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빠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시체육회 위상 높여 나갈 것”

김종호 전 생활체육회장 제주시체육회장 선거 출마



김종호(사진) 전 제주시생활체육회장이 오는 15일 치러지는 민선 제주시체육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주시체육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대다수 전현직 체육인들의 간곡한 요청을 뿌리칠 수 없어 출마하게 됐다”며 “저를 선택해 주시면 후회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시생활체육회장 당시 7억원의 예산을 20억원 수준으로 늘렸으며 생활체육 최대속원 사업인 사랑봉 다목적체육관을 창립했다”며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모기업인 SK에너지와 제휴해 제주도 유소년축구협회회를 창단했고, 초등학교 리틀 야구단을 창단해 야구꿈나무 육성 기반을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제주시체육회의 전국 1등 영광을 재현하고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며 ▷체육 예산 확대 ▷제주시 체육정책 개발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체육 인프라 확충 ▷종목별 협회 및 읍면동체육회와 소통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김 전 회장은 “제주시체육회의 올해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당선된다면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랑봉체육관에 종목별 체육단체 통합 사무실을 만들어 읍면동체육회와의 지원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며 “소통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제주시체육회장 선거 상대 후보인 홍국대 전 제주시체육회 전 상임회장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지은기자

“최상의 상태... 올림픽 티켓 꼭 따겠다”

남녀배구대표팀 출국... 7일부터 2020 도쿄올림픽 예선 출전 여자팀 태국, 남자팀 호주 경계... 20년 만에 동반진출 도전

한국 남녀배구대표팀이 '20년 만의 올림픽 동반 진출' 꿈을 안고 중국과 태국으로 떠났다.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여자 대표팀은 5일 태국 나콘랏차시마로 향했다.

2000년 시드니 대회 이후 20년 만에 본선 진출을 꿈꾸는 남자 대표팀은 같은 날, 중국 장먼으로 출국했다.

남녀 대표팀 모두 7일부터 2020년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치른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딸 수 있다.

전력상으로 세계랭킹 공동 8위인 여자 대표팀의 올림픽 본선 진출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14위이자 아시아 예선 개최국인 태국은 부담스러운 상대다. 공동 24위인 남자 대표팀은 '이

변'을 노린다. 8위 이란과 공동 15위 호주를 넘어야 도쿄올림픽행 티켓을 손에 넣는다.

스테바노 라바리니 여자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이 집중해서 훈련했다. 지켜보며 기분이 좋았다”며 “태국과는 준결승 혹은 결승에서 만난다. 일단 태국에 도착한 뒤에도 최상의 몸 상태로 경기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조심스럽게 말하긴 했지만, 라바리니 감독도 사실상 도쿄올림픽 티켓 경쟁이 사실상 태국과 한국의 2파전이라는 걸 잘 안다.

그는 “태국과는 아시아선수권에서 맞붙은 적도 있고, 태국의 국제대회 경기도 살펴봤다. 태국을 상대로 한 전략도 강화한 상태”라며 “한국의 서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강점을

살려서 태국과 상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여자대표팀은 7일 인도네시아(공동 117위), 8일 이란(공동 39위), 9일 카자흐스탄(23위)과 예선을 치른다.

임동혁 남자 대표팀 감독은 7일 첫 상대인 호주를 경계했다.

임 감독은 “(V리그에서 편 적이 있는) 토머스 에드가가 호주 대표팀으로 출전한다. 에드가 뿐 아니라 키가 큰 공격수들이 많다”고 호주의 장점을 분석한 뒤 “호주가 좋은 팀이긴 하지만, 세트진에 약점이 있다. 우리가 서브로 상대를 흔들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임 감독은 “지금 우리 대표팀 경기력이 90%까지 올라왔다. 올림픽을 열망하는 선수들의 마음이 모이면 100%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자 대표팀은 예선에서 호주, 인도(8위, 131위), 카타르(9위, 33위)와 차례대로 만난다.

연합뉴스

NC 안방마님 양의지 2020시즌 '주장' 선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주전 포수 양의지(33)가 2020시즌 주장으로서 팀을 이끈다.

NC는 2020시즌 주장으로 양의지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NC 구단은 “지난 시즌 종료 후 선수단의 자발적 의견이 하나로 모여 나온 결과”라며 “이동욱 감독과 코치진도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양의지가 주장으로서 시즌을 맞는 것은 처음이다. 양의지는 구단과 선수단의 소통 창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2018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NC와 4년 총액 125억원에 계약한 양의지는 2019시즌 팀의 주전 포수 및 중심 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활약 했다.

팀의 어린 투수들과 호흡을 맞춰 포스트시즌 진출에 기여했고, 2019시즌 타율(0.354)·출루율(0.438)·장타율(0.574) 1위에 올랐다.



피겨스케이팅 1위 유영 5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74회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과천중 유영이 우아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트리플 악셀(공동 3회전반)을 앞세운 유영은 총점 220.20점으로 여자상을 3연패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謹賀新年

2020 경자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택시사업자 일동은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강성지
전국택시공제조합 제주지부 지부장

조흥자동차(주) 대표이사 부행균	현대자동차운수(주) 대표이사 김병희	우진운수(주) 대표이사 윤달웅	(유) 우일교통 대표이사 차주홍
한영운수(주) 대표이사 김부자	(주) 중앙교통 대표이사 김근형	영일운수(주) 대표이사 신관일	(유) 대산운수 대표이사 강옥자
(주) 신흥운수 대표이사 김정숙	성일운수(주) 대표이사 고권형	덕남운수(주) 대표이사 한성식	칠성교통(주) 대표이사 김현창
세기교통 대표이 이용성	한라교통(주) 대표이사 한창인	(주)은마교통 대표이사 홍재만	(주)하이제주 대표이사 김영신
(주)화신교통 대표이사 김기성	평화운수(주) 대표이사 강성지	주영택시(주) 대표이사 강성무	성원택시(주) 대표이사 고양수
동방운수(주) 대표이사 김태원	대영운수(주) 대표이사 이경희	(주)유일운수 대표이사 송문범	(주)안덕택시 대표이사 김동춘
백마교통(주) 대표이사 김영숙	대림교통(주) 대표이사 강성지	대안택시(주) 대표이사 문태진	우남운수(주) 대표이사 남성규
(주)서귀포택시 대표이사 한창인	천일택시운수(주) 대표이사 김정숙	남원운수(주) 대표이사 오승남	
(주)대명교통 대표이사 차주홍	(주)남양교통 대표이사 고석구	(주)동성택시운송 대표이사 강호방	